

지역 매아리

무주군 열린 군수실 '호평'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 주민들과 만나 민원 불편사항 해결

무주군 열린 군수실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소통창구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열린 군수실' 운영을 정례화 시키겠다고 밝혔던 황인홍 군수는 지금도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10일 무주군청 민원실 열린 군수실을 찾았던 주민 이 모 씨(57세, 무주읍)는 "처음 열린 군수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알거나 같아 싶었는데 이제야 믿음이 간다"며 "10년 넘게 약취 때문에 원성이 컸던 축사문제로 여기서 해결이 됐다"며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을 향해 열어놓은 창구인 만큼 많이 듣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돼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열린 군수실은 지난해 7월 25일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14번이 운영됐으며 277명이 방문해 191건의 다양한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접수했다.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장과 팀장들이 함께 방안을 강구한 후 현장에서 출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결과는 민원인들에게 즉시 통보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집계된 것을 보면 행정복지 분야가 44건, 산업건설 분야가 72건, 농업·산림 분야가 42건이었으며 기타도 23건이다. 이중 109건이 해결



무주군 열린 군수실이 주민들의 소통창구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중이거나 처리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읍 당산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도시가스 공급(설치비 지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된 것을 비롯해 △약취로 인해 민원이 들끓던 당산리 둔사 폐업을 권고·보상한 것, △20여 년 넘게 사고위험과 통행불편 문제를 안고 있던 무주 읍내 도시계획 도로(소로 1-23호) 토지를 수용해 확·포장을 완료한 것,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을 복지대상자로 등록시켜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게 된 것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10:00~12:00) 무주군청 민원실에

서 운영되고 있는 열린 군수실은 주민들의 건의·애로사항을 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원스톱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주군은 열린 군수실을 통한 군수와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이 좋은 제도와 의견 발굴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열린 군수실 외에도 군민과의 잦은 소통을 위해 '반딧불 희망 소리함'을 군청과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11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주민의 소리에 귀를 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운영

1회 최대 7일까지 이용... 제2의 인생 설계 도움 기대

진안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인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안군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내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를 준공했다.

진안읍 로터리 인근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는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강조한 친환경목구조 건물로 지상 1층,

규모 292㎡, 게스트룸 5개,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성인 1인 1일 1만원이며, 1회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2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머물면서 농지 및 주택정보, 프로그램 및 교육 정보, 귀농귀촌 정책 등을 얻을 수 있는 종합안내 창구 역할을 해 진안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10일 독립 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健齋) 정인승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3주기 추모제를 장수군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장수군, 제33주기 건재 정인승 박사 추모식

100여명 참석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서 거행

장수군은 10일 독립 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健齋) 정인승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33주기 추모제를 장수군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이 날 추모제는 장영수 장수군수를 비롯해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김종열 기념사업회장, 유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영수 군수의 초헌례,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의 아헌례, 객점용 조합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계북면 양아리에서 태어나,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대해 연희전문학교에서 본격적인 한글 연구를 시작, 졸업 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며 <한글>지의 발행을 주관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 우리 말 체계화를 위한 핵심 연구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에는 우리 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완수하고 평생을 한글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장수군은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은 36년 동안 우리 겨레의 얼과 말, 글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005년 6월, 총 15억원을 들여 전시장, 사당, 동상 등 3,887㎡의 부지 규모로 정인승 기념관을 건립, 매년 4월 10일 정인승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종열) 주관으로 추모제례봉행 을 거행해 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www.jjmaeil.com

꽃비 맞으며 동화 속 주인공 돼 볼까?

제3회 무주 설천 뒷작금 벚꽃축제 개최

벚꽃행렬이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 설천면에서도 이번 주말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부터 14일까지 상평지 사냥보위 교량 옆 광장에서 제3회 설천 뒷작금 벚꽃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설천면 의식업협의회에서 준비한 파전과 잔치국수, 순대, 어묵탕 등을 맛보며 벚꽃의 운치를 즐겨볼 수 있는

기회다. 인근에는 반디랜드, 태권도원, 구천동 33경을 비롯한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이 위치해 있어 연계 관광도 가능하다.

설천면 의식업협의회 서숙자 회장은 "화사하게 핀 벚꽃과 주민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먹거리가 나른한 봄날에 생생한 에너지를 드릴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꼭 설천 뒷작

금으로 꽃비가 오시라"고 전했다.

관광객 김 모 씨(45, 대전)는 "설천 뒷작금 벚꽃 길은 소박하지만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이라며 "일이 있어서 왔다가 축제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들과 꼭 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구천동 33경 중 1경인 라제폭문에서 2경 은구암까지 2.2km 구간도 구천동 벚꽃 길로 잘 알려진 곳으로 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진 꽃길에 탄성을 자아낸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